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눈푸른 재가불자 키운다”

구미선산주지련 정우스님



“불자들에게 올바른 신행관을 확립시켜 불교,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신도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암련학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문 신도교육원을 개설하는 구미선산주지련연합회 회장 정우(구미 금강사 주지)스님은 신도교육이 선행되어야만 지역불교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눈 밝은 재가불자를 양성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초 구미시 송정동에 건평 100평 4층 규모의 구미불교문화교육원을 개원, 불교요양대학을 개설해 신도 입문교육, 기본교육, 지도자 교육 등에

어린이·청장년 포교도 강화

도리사·모례원 성역화 지원

나서는 스님은 구미시청불자회 구미불교거사협회 교사불자회 구미백제문화불자회 등 직장직능불자회 활성화를 위해 법회 및 신행공간을 제공하고 지도법사(직지사장)인 강사 세동스님 예정을 위촉하는 등 재가불교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35만 구미 시민 가운데 젊은 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출공단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린이·청소년법회와 대불련 대불경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우스님은 불자들을 위한 훌륭한 강사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16개 회원 사찰들의 인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창립 4주년을 맞는 올해 안에 회원 사찰을 3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님은 이와 함께 구미시와 백운성조사유충실현

후원회가 추진하는 신라불교 초전지인 도리사 및 모례원 성역화사업에도 힘을 보탬 계획이다. 신라불교 발상지인 구미시의 상징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구미시청불자회(회장 신영근 기획담당관)와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구미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무력화시킨 바 있는 스님은 아직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선산 원각사 인근 고층 아파트 공사로 인한 사찰환경 훼손 등 지역 난개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정우스님은 “지역민들의 최대 현안인 박대통령기념관 건립부지의 재선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도 적극 동참하는 한편, 신행단체와 협조해 불교행사를 자주 개최하고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 활동도 강화해 지역민들에 다가가는 불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미=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선무도대학 내년 개교

골굴사 25일 본관 준공식...전통무도 보급

경주 골굴사(주지 직운)는 오는 25일 선무도대학(http://golgulsu.com) 본관 준공식을 거행하고 골굴사를 중국의 소림사와 비교되는 한국 전통무도의 요람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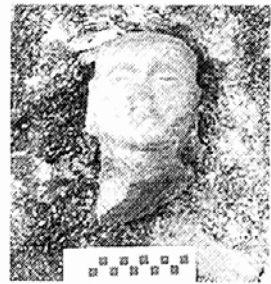
지난해 2월 10일 착공된 선무도대학은 총 8억원의 예산으로 연건평 378평에 1층 수련관, 2층 강의실, 3층 교수연구실과 명상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교 뒤편에 2억원을 들여 야외수련장이 건립 중에 있으며, 12억원의 예산으로 연건평 400평 지상 4층의 기숙사도 대학 준공식에 맞춰 착공될 예정이다.

내년도 개교에 앞서 전국의 선무도 수련생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선무도대학은 선무도의 수행과 전문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특수대학원 인가를 얻어 5학기제의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선무도의 실천수행을 바탕으로 불교학과, 체육학과, 불교학과 한의학을 접목한 선기공의학, 외국어과, 무용·판소리·악기·서예·다도 등 한국전통문화과를 기본교과 이수과정으로 한다. 054744-1689 최기범 경주지사장

용천사지서 ‘불두’ 출토

고려중기 나한상 추정

서해最古사찰 규명 단서



8세기 중엽에 창건, 서해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추정되어 온 합평군 해보면 용천사의 창건시기를 입증할 만한 불두(佛頭) 등이 출토됐다.

용천사지서·발굴 조사연구단(단장 이태호 전남대박물관장)은 1월 31일 현장에서 중간발표회를 갖고 대웅전 뒤편 평지에서 출토된 가로 12cm, 세로 17cm 크기의 나한상으로 보이는 불상 머리와 다수의 기와·도자기 조각 등을 공개했다. <사진>

고려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청자 유약을 발라 만든 이 불두는 서남해 지역에서는 최초로 발굴된 것으로 타 지역에서 발굴된 불두

와는 크기가 훨씬 커 고려시대 당시 용천사가 전국 주요 사찰중 하나였음을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합평군과 조사연구단은 오는 11월 말까지 4억원을 투입, 용천사 주변 4천843㎡에 대한 조사를 펼쳐 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

천성사 문화재 훼손 방지

석탑 기울고 대웅전 무너져

도유문화재인 경북 봉화 천성사(주지 진균) 석조여래입상(제134호)과 삼층석탑(제133호)이 당국의 무관심으로 훼손위기에 처해 있다.

아미타부처상은 나팔여초, 삼층석탑은 고려시대에 조성된 석조문화재이지만 석조여래입상을 모시고 있는 대웅전의 좌측과 뒤편 처마와 지붕이 붕괴되어 비·바람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

형편이다. 삼층석탑 역시 한 편으로 기울어져 있어 파손이 우려된다.

천성사 주지 진균스님은 “전통사찰로 지정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문화재 보호 보존 차원에서 지원이 거의 없다”며 문화재 정책에 대해 안타까움을 밝혔다.

경북도청과 봉화군의 담당기관은 빠른 시일에 천성사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 문화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기범 경주지사장

종단 소식

조계종

한암문도 도제양성 연수

제4교구 본사 월정사(주지 현해)와 오대산 한암문도회(회장 인혜)는 10-11일 월정사 서별당에서 도제양성 연수회를 개최한다. 1990년 이후 수재한 본말사 소속 스님들은 한암·탄허 선사의 행장, 만화 선사의 월정사 중창 원력 등에 대해 연찬한다.

주지선출 신중총회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의정)는 12일 오후 1시 봉선사 청풍루에서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신중총회를 소집한다. 임후보자의 자격은 승랍 25년 세랍 45세 이상, 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이 경과한 당해 교구 재직승 등이다.

태고종

불우 이웃돕기 실천운동

총무원회는 1월 18일 사회복귀법인 성남 자광원을 위로 방문하고 송중연 총무원장스님을 비롯 총무원들이 모은 성금 1,633,000원 상당의 위문품(백미·난방용품·과일·음료수·빵 등)을 전달했다.

종단은 오는 28일까지를 ‘실낱이 어려운 이웃돕기 자비보시행 실천운동’ 기간으로 정하고 종단 산하 19개 교구총무원과 2천6백여 사찰별로 쌀과 성금, 물품을 모아 각 언론기관에 기탁하거나 해당지역 고아원과 양로원, 노숙자 합숙소 등을 위문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혜성 총무원장 취임

제10대 지혜성 강원 총무원장 취임법회가 19일 오후 2시 춘천 정토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취임법회는 영산재보존회 아산종장스님들의 집전으로 전통신앙의식으로서 진행되며 종원 태고종

총무원장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다.

진각종

회당 100주년 홈페이지

진각종회 회당대중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홈페이지(http://www.hoedang.or.kr)가 공식 개통됐다. 이 홈페이지에는 회당대중사의 생애를 비롯 사업회의 각종 소식을 담고 있으며, 사업 소개, 기획코너를 비롯 진각종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청년회장 오홍수씨

진각종 서울청년회 제30대 회장에 오홍수씨가 선출됐다. 서울청년회는 1월 28일 신촌심인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전기 54년 사업 및 결산보고를 하고, 부회장은 장우영(담주심인당), 김소영(행원심인당)씨를 선출했다.

총화종

대보름 맞이 방생법회

총무원장 남정은 정월 대보름 맞이 방생법회를 7일 남이섬에서 갖는다. 총무원장 남정스님을 비롯 종단 스님들과 신도 등 2백여명이 동참하는 이날 방생법회는 환경방생을 지향, 남이섬에 있는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조류방생을 실시한다. 031592-8891

총지종

해암 총리원장 취임

제12대 총리원장으로 선출된 해암총사<사진>의 취임식이 15일 오후 2시 총지종 본산 강남 총지사에서 개최된다. 이날 총지화 총리원장의 임명식과 각 부장들의 임명식도 함께 열린다. 02552-1080

금강정사 전법회 “더높이”

10돌 맞아 대웅전 건립... 복지원 추진

도심포교의 새 지평을 열어나 온 금강정사(주지 지홍)가 1월 25일 각하사 주지 혜답스님, 백재현 광명시장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법회<사진>를 갖고 복지원 건립불사를 발원하는 등 ‘제2의 전법’을 선언하고 나섰다.

1월15일 광명시 소하동 1,100평의 대지에 대웅전 및 요사채 준공을 완료한 금강정사는 복지원 건립도 추진, 광명지역의 포교전당을 갖추는 동시에 노인들을 위한 불교복지도량을 마련할 계획이다.

91년 1월 27일 하안동에 100평 규모의 포교당으로 시작한 금강정사는 개원과 동시에 어린이·학생·청년·거사·일반법회를 활성화 시켜 많은 불교 일꾼을 양성했다. 지역별 조직으로 6개 구법회 16개 법동모임을 구성, 매일 가정에서 법회를 보는 독특한



포교방법으로 광명시의 대표적인 도심 사찰로 성장했다.

특히 신도회를 비롯, 각 법동회 및 청년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사찰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찰 재정의 공개와 투명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93년부터는 금강문화교육원과 도서실을 개설해 신도 기본교육과 경전 읽기, 참선수행, 문화, 건강 등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제공했다. 91년 4월 창간한 <금강일보>는 이달 100호를 맞을 때까지 활발한 문서포교도 벌여왔다. 김재경 기자

Advertisement for 'Mingdang' (명당) featuring a lotus logo, text about 'Qi' (氣) and 'Mingdang' (명당), and contact information for '6kibang' (6기방).

◆ 명당육기방은 기묘한 묘법과 비법이 담겨져 있으므로 불자님의 가정에 안전과 기운, 재산의 번창, 큰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